


이 력 서

성 명	정 기신 (한자: 鄭基信)	
생년월일	1961. 06. 11.	
소 속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주요 학·경력 및 세부전공	<p>1977.3~1980.2 서울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졸업</p> <p>1980.1~1985.7 육군 중사, 기술하사관</p> <p>1982.3~1983.6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야간(군과 병행). 부대 이전으로 중퇴</p> <p>1987.3~1991.2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p> <p>1990.10~1992.10 롯데캐논 인사부</p> <p>1992.11~2009.8 산곡전설, 명신기공, 대경기술단, 신화전자, 지멘스 근무</p> <p>2000.8 61회 소방기술사 취득</p> <p>(선반기능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전기·기계기사, 미화재조사관)</p> <p>1996.8~1999.2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공학석사 (회사와 병행)</p> <p>석사논문: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가지 방식과 격자 방식에 관한 비교연구</p> <p>2001.8~2003.12 서울대-WPI FPE Master 수료 (회사와 병행)</p> <p>2004.3~2007.8 서울공대 화학생물공학과 공학박사 (회사와 병행)</p> <p>박사논문: 이산화탄소를 가압원으로 하는 하론대체 소화기용 청정소화약제에 대한 연구</p> <p>2009.9~현재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p>
한국화재소방 학회활동경력	<p>12대 총무이사, 13대 산학협력이사, 14대 편집위원, 15대 편집위원장(부회장), 16대 총무부회장</p>
연구실적	<p>논문: 스프링클러관련 연구논문 20편</p> <p>원자력발전소, 가스, 위험물 등 SCI 논문 외 44편.</p> <p>저서: 화재공학개론 외 5권</p> <p>보고서: 원자력발전소의 성능위주설계지침</p> <p>10층 이하 건축물의 자동소화설비 설치 확대 방안(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외</p>
활동분야	<p>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p> <p>충청북도 도정 정책 자문단, 충청북도 대형화재 수습 자문위원</p> <p>서울지방검찰청 전문가 자문단</p> <p>국토부 중앙건축 심의위원</p> <p>소방청 중앙소방기술 심의위원</p> <p>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장</p>
기타사항	<p>2011. 02 / 2012. 02 세명대 수업평가 우수교원상</p> <p>2014. 04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상</p> <p>2016. 07 제26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p> <p>2016. 11 국민안전처 장관상</p> <p>2017. 02 한국화재소방학회 우수논문상</p>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제 17대 학회장 후보 정기신의 공약

“우선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출마함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견을 들어야 했으나 16대 선거에서 선거운동 과열화 방지를 위해 합의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찾아뵙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로건(Slogan 綱領): 희생과 노력을 보상 받을 수 있는 학회

-공약 사항

1. 안식년 1년을 바친 Full Time 학회장

80년 1월 성동기계공고를 졸업과 동시 기술하사관으로 입대하여 6년을 보내고 52사단 병기대 인사계를 끝으로 전역하여 동국대와 서울과기대를 거쳐 40살에 소방기술사를 취득하고 47살에 서울대 화공과에서 박사를 받기 까지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열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59세,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제까지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그 행동의 일환으로 저의 안식년 1년을 한국화재소방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1년 동안 Full Time 학회장으로 과거에 미루어 놓았거나 발전기금확보와 같이 소방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체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2. 학회장 선거제도 안정화

16대 회장선거에서 정영진교수와 저와 합의하고 정관계정을 통하여 결정된 선거 과열화 방지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단인 평의원을 개별적으로 찾아뵙는 것을 지양하고 온라인으로 저의 의견을 전달하며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회장이 결정된 후에는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품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회장선출을 1차 평의원, 2차 정회원에 의해 하던 투표를 현행의 1차 평의원투표로 축소함에 따라 대표성의 확보를 위해 현재 150명인 평의원을 200~25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학회 발전기금 5억 마련

학회 이사로 편집위원으로 봉사하다 15대 김엽래 회장 시절 편집위원장으로 등재폐지 위기에 처한 학술지를 정상상태로 만들었으며 16대인 현재 총무부회장으로서 재정을 담당하며 과거 60~70%에 이르던 평의원회비 납부율을 활동을 보류한 2명을 제외한 평의원 전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등록하게 하는 등 어려운 학회의 재정상태를 2018년 말 잔고 2억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3억을 더 모아 학회가 재정에 대한 걱정이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나가도록 5억의 발전기금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역시 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소방기술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구체적으로 실행 중에 있습니다.

4. 소방발전을 위한 정부·산업계·학계의 협의체 구성

2017년도부터 소방청과 협의하여 공무원과 업체 그리고 학계 등 관련 있는 모든 단체가 함께 모여 협의에 의해 기준을 결정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추진하여 오다 2019년 1월 28일에 국립소방연구원 내에 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의 발전이 제한되어온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관과 산업계 학계가 주기적으로 모여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편의대로 모여 의사결정을 하였기에 단계 단계를 나아가며 불협화음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이 센터가 잘 정착되어 소방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같이 적극 개입하여 모든 소방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전체평의원에 대한 주기적 의견수렴

6개월 단위로 on-line, off-line을 통하여 학회발전을 위한 전체평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회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들을 분기별로 전체평의원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회 발전을 위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sobang1961@gmail.com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